

태고·총지종 종정 6월 추대

태고-혜초·일우 스님, 총지-원봉·효강 정사 등 물망

태고종과 총지종이 현재 공석중인 종정(종령)을 새로 추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누가 후임 종정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종정 덕암 대종사가 지난해 11월 22일 원직인 이후 5개월째 새 종정을 추대하지 못하고 있는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부처님 오신날 이후인 6월 3일께 열리는 원로회의에서 새 종정을 추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고종은 당초 2월 추대할 예정이었으나 원로회의 의원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추대를 늦춰왔다. 종단의 최고 어른을 모시는 중대한 일인 만큼 선출보다는 추대가 바람직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 미룰 경우 종단의 정체성도 흔들릴 것으로 우려, 시기를 6월초로 잠정 결정할 상태다.

이에 따라 차기 종정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스님들에게 종단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종정 후보로 거론되는 스님은 서울 법륜사 조실 혜초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일우 스님 등이다. 그러나 종단 집행부와 원로의원들이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어 좀처럼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덕암 스님의 수행기풍을 이은 혜초 스님은 총무원장, 포교원장 등 종단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태고종내 최대 문도인 대륜문도회를 이끌어 왔다. 반면 일우 스님은 청도 보현사를 창건한 이후 줄곧 포교와 수행에 매진해 왔으며, 대구·경북교구 총무원장, 중앙종회 의장 등을 지냈다.

3월 29일 제8대 종령 수성 대종사가 원직함에 따라 새 종령을 선출해야 하는 총지종(총무원장 우승)은 후보가 너무 많아 고민에 빠져 있다. 4월 22일 열린 승단총회에서 차기 종령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지만, 결국 전 종령 수성 대종사의 49재가 지난 이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기로 스승(교화 일선에서 은퇴한 스승)인 원봉 정사와 효강 정사, 부산경남 교구장 해암 정사, 중앙종회의 의장 의강 정사 등 5-6명의 스승이 차기 종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무원장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에는 일체 함구령이 내려졌다.

수성 종령의 49재가 아직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차기 종령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수성 종령이 새해불교 기간에 원직하면서 종단운영에 막대한 자질을 빛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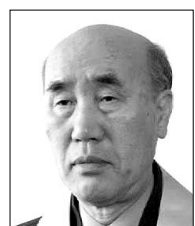
계다가 특정 전 종령이 입직할 이후 6개월 동안 차기 종령을 선출하지 못했던 전례도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종령 추대를 위한 승단총회는 6월 월초를 끝으로 소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출범 한달을 맞은 우승 총무원장 체제가 원활한 종단운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서두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후보군에 올라 있는 스승들의 면모가 정쟁한 것도 총지종의 종령 선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총지종립 동해중 이사장에 의강 정사

사회부장 환수원 전수, 교정부장 지희심 전수 임명



의강 정사
총지종은 종립 동해중학교 이사장을 비롯해 총무원장, 총의회의 의원 등 공석 중이던



환수원 전수
사회부장 환수원 전수, 교정부장에 지희심 전수를 임명했다. 또 4월 22일 승단총회에서 공



지희심 전수
사회부장 환수원 전수, 교정부장에 지희심 전수를 임명했다. 또 4월 22일 승단총회에서 공

종단 주요 요직을 메워 나가고 있다.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는 4월 16일 제94차 이사회를 열고 의강 정사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총무원도 4월 22일 부장 인사를 단행, 사회부장 환수원 전수, 교정부장에 지희심 전수를 임명했다. 또 4월 22일 승단총회에서 공

석 중인 중앙종회의 의원에 법공, 행정 정사를 선출했다.

관음학사 새 이사장 의강 정사는 경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2년 총지종에 입문한 이후 사감원장, 원의원, 부산경남교구장, 중앙종회의 의장, 부산불교사암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앙종회의 의장, 부산 삼밀사 주교를 맡고 있다.

사회부장 환수원 전수는 82년 총지종에 입문한 이후 중앙종회의 의원,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원의회의 의원, 전당 건설위원 등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 벽동사에 주석하면서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규장부장 지희심 전수는 95년 전법관정 수계한 이래 정각사, 밀행사를 거쳐 포항 수인사에서 교화활동을 펼쳐 왔다.

박봉영 기자

태고종 홈페이지 입찰 심사

5월 중순 최종확정...종무행정 투명화 첫 시도

태고종이 열린 종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첫단추를 끼웠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4월 28-30일 서울 은평구 신사동 서울종무처에서 7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입찰 심사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각종 사업을 공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종단의 사업구조를 투명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태고종 총무원 관계자는 "투명한 종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첫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의주를 통해 이뤄지는 불사는 물론 종단내의 종무행정까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고종은 5월초까지 3개 업체를 선정하고 2



한 입찰 참가업체가 태고종 총무원에서 홈페이지 매뉴얼을 설명하고 있다.

차 인터뷰를 거쳐 5월 중순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는 올 연말 개통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만월회 회원 7백명 돌파

매월 각자 1만원 불우이웃에

진각복지재단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 릴레이 만월회' 캠페인에 동참하는 회원이 7백명을 돌파했다.

진각복지재단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총 702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만월회 캠페인은 매월 1만원을 성금으로 내놓는 보시운동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면 또한 명의 회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초승달이 점점 차올라 보름달이 되듯 불우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회원을 늘려 나가자는 취지에서 만월회(滿月會)라 명명됐다.

진각복지재단은 만월회 캠페인으로 조성된 성금을 종합복지타운 건립과 납골당 건립, 소외계층 후원 프로그램을 진각복지 119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진각종 대표단 13일 訪日

진언종 개산재 초청받아

진각종 총무원장 효암 정사를 비롯한 8명의 진각종 대표단이 일본 진언종 지산과 대본산인 평간사의 초청을 받아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

진각종 문화사회부장 최성 정사는 "이번 방문은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불교교류대회때 진언종 관계자로부터 올해 진언종 대개장(개산재) 행사기간 중 방문해 줄 것을 요청 받아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진각종 대표단은 일본 방문기간 동안 평간사에서 대표자들과 만나 양 종단의 교류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흥법대사 탄생 불족법회와 자등 호마공양 시연 등에 참여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또 호국기도도량으로 알려진 오사카 사천왕사의 37존상 분당 참배, 교토 동사의 교화 연구기관 참관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조계종 신도회 임원 연수 돌입

자원봉사·복지활동 교육 강화

조계종이 제3교구를 시작으로 신도회 임원 연수 입장에 들어갔다.

조계종 3교구본사 신홍사주지 마당은 4월 24-25일 설법전에서 본말사 신도회 임원 연수를 실시했다. 소속 16개 사찰의 신도회 임원과 불교대학 임원, 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는 강의, 토론을 비롯해 참선, 108참회, 수계식 등 실습 수련도 병행됐다.

올해 연수회부터 자원봉사와 복지활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조계종의 방침에 따라 신홍사 본말사 신도회 임원 연수에서는 '자원봉사'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이 특강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관계자와 원주 성불원장 현각 스님이 강사로 나서 '불교 자원봉사활동의 이해'와 '불교자원봉사 실례 및 실천방향'을 주제로 각각 진행됐다.

본말사 신도회 임원 연수교육은 올 연말까지 24개 교구본사에서 실시된다. 다음 연수는 제4교구 월정사에서 6월 5-6일 열린다.



미륵종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미륵종(총무원장 승정)은 4월 21일 부산 옥선사에서 티베트 잠보라 라마 스님을 초청, 국제보살계 수계 및 마정수기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5백여 불자들이 동참해 수계를 받았다. 미륵종 전국비구니회장 동성 스님(옥선사 주지)은 "수계를 받는 순간 불자들은 비로소 진정한 불자가 태어나게 됐다"며 "부처님 말씀에 충실하고 삼보와 불법을 수호하는 우바세·우바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진각종 자성학교 전담교사 연수

진각종 포교부(부장 무외)는 4월 28-29일 서울 월곡동 총무원에서 자성학교 전담교사 연수를 개최했다. 진각종 산하 자성학교 전담교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는 리더십 교육과 종이접기 감상, 여름 연합캠프 일정 및 세부사항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무외 포교부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전담교사들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어린이 포교에 적합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좋은 정보를 서로 공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종단소식

칭찬 주인공 서용은 씨

천대 총사회복지재단(이사장 윤덕)이 전개하고 있는 칭찬 캠페인의 세번째 주인공에 서용은 변호사(서울현대병원 내과 전문의)가 선정됐다. 서용은 변호사는 천태의료봉사회 회원으로, 매월 첫·셋째 주 토요일 서울 관문사 신도상담실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법륜종 논산포교당 낙성

법륜종(총무원장 정법)은 총무원이 있는 지장암의 논산지역 포교당 대현사를 4월 25일 개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현사 회주 정법 스님을 비롯해 주지 법륜스님, 고산 스님, 지엄 스님 등 3백

여명이 참석했다. 논산시 대교동에 위치한 대현사는 앞으로 법륜종의 논산지역 포교를 담당하게 된다.

조동종 사업일정 확정

조동종(총무원장 심월)은 4월 23일 열린 6부 원장회의에서 주요 사업과 행사 일정을 확정했다. 중국성지 순례 및 동방대불 수목영산재는 6월 10-13일 중국성도, 낙산, 아미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부터 종도들의 편의와 소속감 고취를 위해 제작하기로 했던 종도 수첩을 6월 중순 배포하기로 했다. 종도 수첩에는 불교의식 기능보유자 현황과 전국 사찰 및 종도 현황, 종헌·종법 등을 수록하기로 했다. (02)2062-0725



△금릉암에서 본 석종사 전경

석종사 낙성식법회

천년고찰 충주 석종사에서 낙성식 및 삼존불점안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석종사는 신라, 고려시대에 백여명 넘는 스님들이 수행하던 대가람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배불승유정책으로 폐사가 되어 개인소유가 되었던 터를 여러불자들이 지난 20년간 약10만여평의 터를 마련하고 3년전부터 복원봉사를 시작하여 이번에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두루 동참하셔서 경책하여 주시고 내가 나를 찾는 아름다운 목동이 되어 성불의 씨앗을 심고 모든 소원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하나이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일 시 : 5월 15일 (음력 3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한불교조계종 석종사 선원장 예국 합창

충북 충주시 직동 149번지
043)854-4505 • 051)804-5657
조흥은행 622-04-402285 예금주:석종사